

경남일보

진주 갤러리 루시다, 사진가 구본창 특강

20일 조형이론 등 내용 담아...7월4일 전시

곽동민 기자

승인: 2015.06.04 20:49:53

진주시 호탄동 소재 루시다 사진 갤러리에서 '시간을 담는 사진가' 구본창의 특강이 열린다.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는 백자를 중심으로 한 작품 세계와 사진에 숨겨진 조형이론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전세계 주요한 백자 컬렉션을 찾아다니며 백자 촬영에 열중한 작가는 "도록이나 박물관 안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에게만 살결을 드러내 보여주는 백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듯, 닳고 여기저기 굵힌 흔적을 가진 백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화상 같아서 좋았다"고 말한다.

특강과 함께 구본창 교수의 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명하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리게 된다. 전시는 20일부터 7월4일까지다.

사진가 구본창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에서 사진 디자인을 전공, 디플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1년 삼성 로댕 갤러리, 2002년 미국 피바디 에섹스 뮤지엄, 2004년 파리 갤러리 카메라 옵스큐라, 2006년 국제 갤러리, 교토 카히츠칸 미술관, 2007년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2010년 필라델피아 미술관 등 국내 외에서 4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8년 대구사진비엔날레에서 총감독과 2013년 파리PHOTOQUAI에서 큐레이터를 맡았으며, 2014년 프랑스 아를 사진 페스티벌에서 디스커버리 상의 노미네이터를 맡았다.

그의 작품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휴스턴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교토 카히츠칸 미술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삼성 리움 등 국내외 다수의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으며, 작품집으로는 한길아트 '숨', '탈', '백자', 일본 Rutles '白磁', '공명의 시간을 담다' 등이 있다.



구분창



구분창 作 백자

URL: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79>